

문학과종교학회 1월 독회
M.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4부
문형준(중앙대 영문과)
2015. 1. 22.

문학의 신성화, 신성의 문학화

M. 엘리아데의 [상징, 신성, 예술] 4부인 '문학과 신성'은 네 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네 편의 에세이 중 첫 세 편은 엘리아데의 모국인 루마니아의 민속문학, 소설, 시, 연극 등이 '신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네번째 에세이는 좀 더 일반적인 주제로서의 문학과 종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4부에 실린 글 전부는 루마니아의 특정 작가를 다루든, 일반적인 문학을 다루든, 공히 문학이라는 양식이 어떤 방식으로 신성 혹은 종교성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 혹은 문학과 신성이 어떻게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논증하고 있다.

13장 <민속의 주제와 예술>(1937)은 '민속적 영감'과 관련된 루마니아 예술가와 작가의 작품이 가진 "평범성"(259)을 개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루마니아는 엄청나게 다양한 민속적 형식들을 갖고 있고, 루마니아 작가들은 이를 이용해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지만, 엘리아데가 보기에 민속에 바탕을 둔 작품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만족스럽다. 첫째로, 민속적 영감이 "그대로 복사"(260)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재생산"(260)되었고 ("죽은 형식," 260), 둘째로, 민속적 영감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에는 작가들이 "새로운 '시각'과 상징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262)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민속적 영감을 그저 기계적이고 표피적으로 카피하는 데 그친다면, 후자는 민속적 영감 고유의 생명력을 지나치게 훼손한다. 하나는 과소하고, 다른 하나는 과다한 셈이다. 엘리아데는 민속적 영감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속적 영감의 "원천을 추구해야 할 것"(260)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원천'이란 오랫동안 대중들이 민속적 문화를 즐기면서 만들어 온 "환상적 실재, 곧 비합리적 경험"(260)을 말한다. 이 경험과 체험은 '비합리적'이고 따라서 이성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불가능할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석'하고 해체하여 거기에 작가의 관점과 가치를 집어넣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속적 영감'의 원천을 살리지 못했다고 엘리아데는 말한다. "오히려 현대 예술가가 그런 주제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 주제를 심화시킴으로써 그것을 낳은 비합리적인 원천을 재발견하는 데에 있다"(261). 이 글에서 엘리아데는 지식과 경험을 대비하면서(262), 민속적 영감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작가가 루마니아 고유의 민속적 상징을 심화시킴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고 나아가 "마치 꿈꾸듯이 (...) 잠재적인 삶에 참여"하게 할 때(263) 비로소 위대한 작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엘리아데가 말하는 '꿈으로서의 체험', 곧 민속적 영감의 원천은 마지막 글인 16장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의 구조>에서 재등장하는데, 그 글에서 엘리아데는 꿈을 꾸고자하는 인간의 유기체적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문학과 종교를 찾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즉, 엘리아데에게 꿈-체험은 민속 문화, 문학, 신성, 종교를 관통하는 주요한 요소인 것이다. 꿈은 비합리적이고, 상징적이고, 총체적이며, 신성 및 문학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단편적이고, 과학/지식으로서의 영역, 곧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항대립은 4부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14장 <비베스코와 동서 문학의 만남>(1977)은 루마니아의 황녀 비베스코의 여러 작품들의 의의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엘리아데가 비베스코의 문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초점은 그녀가 유럽의 '역사'를 단순히 '사실'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의 집합으로서의 역사를 통해 그 안에 담긴 "복합성과 신비를 더욱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276)는 데 맞춰져 있다. "비베스코는 다음 두 가지 관점, 즉 역사 자체의 고유한 관점과 신화적 사유의 창조물인 범례적 역사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재결합시키려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녀는, 심지어 가장 웅장하고 가장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건조차도 만일 그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인간으로 하여금 신에게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276). 이러한 엘리아데의 비베스코 평가 속에서 '역사'와 '종교'("신에게 돌아가도록")를 대비시키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의 '역사'란 사실의 집합으로서의 역사인데, 엘리아데는 그러한 역사의 반대편에 '종교' 혹은 '신화'의 영역을 위치시킨다. 역사가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사실의 집합이라면, 종교/신화, 곧 '성스러운 것'은 복합적이고, 신비로우

며,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총체적이고 통일성을 가진 영역을 의미한다. 비베스코의 역사관은 바로 이러한 성스러운 것에 대한 추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역사’를 극복해낸 것이고, 엘리아데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황녀 비베스코에게 이런 역사적 사건에 내포된 심각한 의미를 해독한다는 것은 동시에 영적 훈련, 즉 종교적 질서에 대한 명상을 뜻하기도 했다,” 277). 비베스코와 마찬가지로, 엘리아데에게도 역사란 단지 사실의 집합이 아니며, 그 안에는 “깊은 의미”(278)가 있고, “수많은 (...) 사건들 밑에 깔려 있는 통일성”(279)이 있다. 엘리아데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총체적인 방식의 세계인식, 곧 성스러운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이며, 이것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 ‘상징, 신성, 예술’에서 공히 발견할 수 있는 태도이다. 상징, 신성(종교성), 예술은 모두 인간과 세계에 보편적으로 담겨있는 어떤 “범례적”(276) 관점을 지향하며,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다(따라서 과학과 문학은 “상상력의 작용”(267)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의 흡사하며, ‘지식’이란 바로 이런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이해를 뜻한다(브로노프스키, 267)). 반면 구체적이고 단편적이며 사실의 나열을 표상하는 ‘역사’의 관점이란 이 신성의 관점, 범례적 관점에 대비되는 것이며 따라서 불가피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글에서 등장하는 표현을 빌자면, 엘리아데는 기실 “역사를 사보타지”하고 있는 셈이니(276), 곧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영원한 가치와 초역사적인 의미”에 있기 때문이다(276).

엘리아데의 이항대립은 15장 <이오네스코와 ‘낙원의 향수’>(1978)에서도 반복된다. 루마니아의 극작가 이오네스코의 작품을 다루는 이 글에서 엘리아데는 다시 한 번 ‘역사’와 ‘상상력’을 대비시킨다. 이오네스코는 그의 연극을 통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억압적인 ‘역사적 계기’를 최소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잊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한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일상의 기계적인 진부함과 이데올로기적인 불투명성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281)이라고 엘리아데가 말할 때, 그는 ‘역사’라는 영역에 “억압”, “일상”, “기계적인 진부함”, “이데올로기적인 불투명성”을 접목시킨다. 그 반대편에는 “관객들이 자기 자신의 상상력이 지닌 더없이 행복한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모습”(281), 곧 ‘상상력’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다시 ‘종교적’이다(“대부분의 상상력의 산물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281). 이러한 대비는 다시 글의 뒷부분에서 반복된다. 이오네스코가 어린 시절 겪었던 ‘빛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아데는 그러한 경험이 “종교 경험”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런 체험은 당사자로 하여금 일상적 세계, 혹은 역사적 정황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세계 — 초월적’이고 ‘거룩한’—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289)라고 말한다. 즉, 이오네스코의 개인적 체험과 그의 작품을 통해 엘리아데는 진정한 문학작품, 예술작품은 이처럼 억압적이고 일상적이고 진부한 ‘역사’의 영역에서 벗어나 “성스럽고 참된 자유의 세계”(289), 곧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세계의 문을 연다고 주장한다. 이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세계는 다시, 인간 본연의 ‘상상력’과 연결되며, 이는 결국 ‘문학’의 영역에 닿아있다.

이 책의 마지막 글인 16장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의 구조>(1978)가 ‘문학’과 ‘종교’의 친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엘리아데는 자신이 과학적 탐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문학적 상상력을 갈구했던 체험을 말하면서(293-4), 과학과 문학은 공히 ‘인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동떨어져있지 않다고 말한다(여기에서 그는 14장에서 인용한 브로노프스키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한다, 295). 인간은 자신의 내면세계와 주변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실존적 욕구”(297)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과학과 문학은 그 실존적 욕구의 결과라는 것이다. 노파에게 날마다 동화를 듣고 싶은 욕구 때문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야기(297)와 REM 단계를 박탈당해 꿈을 꾸지 못했던 이들이 정상적 수면이 허용되자마자 REM 단계의 수면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실험결과(298)를 얘기하면서, 엘리아데는 인간 본연의 그 실존적 욕구를 재차 강조한다.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에서 등장하는 것이 (과학과) 문학이라면, 문학은 그런 점에서 신화와 동일한 뿌리를 가진다. 종교가 ‘뿔의 현현’이고, 이 성의 현현을 통해 ‘속’을 성스럽게, 곧 “의미있고 소중하며 범례적인 어떤 것으로 변형시킨”다면, 문학 역시 “의미있고 범례적인 인간적 가치들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따라서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인물과 사건 안에 숨겨져 있다”(300). 종교와 문학은 따라서 모두 이 범례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계열에 놓인다.

앞에서 얘기했듯, 4부의 모든 글에서는 이렇게 단편적이고 사실적이며 구체적이고 파편적인 것을 총칭하는 ‘역사’와 총체적이고 상징적이며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표상하는 “역사의 사보타지”, 곧 ‘종교, 신성, 신화, 문학, 상상력, 꿈’ 등이 지속적으로 대비된다. 이 반복적인 대비를 통해 엘리아데가 하려는 말은 하나다. ‘역사’의 세계에서 ‘종교/신성/문학’의 세계로 가야된다는 것. ‘역사’가 ‘속’의 세계라면 ‘종교/신성/문학’의 세계는 ‘성’의 세계다. 역사/속의 세계에 표면적으로 머무르는 일은 우리에게 그 어떤 진정한 인식과 지식도 줄 수 없으며, 오직 종교/신성/문학/聖의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표면에서 볼 수 없었던 나, 인류, 세계의 보편적 인식을 얻을(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엘리아데는 ‘탈신화화’라고 말한다. 맑스의 탈신화화가 신비화된 문화적 창조물(聖) 너머의 참된 현실(俗)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엘리아데의 탈신화화는 정반대다. 세속적 세계와 언어(俗)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성스러움의 세계(聖)를 드러내는 것이다(302). 맑스의 탈신화화를 물구나무 세우면서, 엘리아데는 (경제학이 아니라) 문학과 종교야말로 인류 보편의 원초적 체험과 상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인간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자 진정한 지식의 생산지라고 말하고 있다.